6) 아직까지는 주인과 청지기 외에는 그가 해직되었음을 아무도 모른다. 나머지 사람들이나, 그 지역의 사람들이 조만간 그가 해직되었음을 알게 될 것이니, 청지기는 빨리 자신의 위기에서 벗어 날 계획을 실행해야만 한다. 주인과 계약을 한 경작인들을 오라고 청지기는 자신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을 보냈음이 확실하다.

7) 청지기에게 온 경작인들이야 아직까지도 그가 해직되었음을 모르고, 전혀 문제없이 여전히 주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자신들을 부른다고 자연스레 이해했다.

(1) 그런데 아직은 추수 때가 아니다. 그 말인즉슨 경작인들이 주인과 계약한 대로 수확물을 그에게 지불할 때가 아직 아니라는 것이다.

(2) 청지기는 자신이 부른 경작인들과 일대일로 면담을 시작하였다. 경작인들 사이에서 서로 계약상의 세부 내용들을 털어 놓는 것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청지기가 경작인을 만날 때, 호칭마저 생략할 정도로 시간이 그에겐 급박하였다. 청지기가 벌이려는 부당한 계획을 도중에라도 주인이 알아 내기 전에 마무리하고자 서둘렀기 때문이다.

(3) 경작인들은 청지기가 여전히 주인의 대리인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그가 제시하는 새로운 계약조건이 자신들에게는 금전적으로 크게 이익이 되므로 적극적으로 그에게 협조하였다.

(4) 이 경작자들은 주인과 상호신뢰하는 관계를 가지고, 그의 땅을 빌려 농업을 해 왔던 정직하고 믿을만한 지역의 소농인들이다. 만약 이들이 자신들과 계약을 수정하는 청지기의 행위가 주인 몰래 이루어 지는 불법임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그에게 협조하지 않았을 것이다.

(5) 주인이 갑자기 선한 의도로 경작자 개개인과의 계약을 자신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대리인 청지기를 통하여 수정해 준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6) 마치 주인의 허락하에 개개인의 경작자들에게 주인이 이익을 주고 있는 양 청지기는 행동하였다. 즉 빚이 줄어 든다는 계약조건을 각각 자신의 손으로 직접 쓰게할 정도로 주인이 배려해 준다는 확신을 모두가 가지도록 하였다.

(7) 청지기는 자신에게 찾아 온 모든 경작자들에게 각자가 갚아야 할 빚이 줄어 들게 된 것이 갑작스레 이루어 지는 일임을 암시했다. 그러면서도 청지기가 주인을 설득하여, 빚을 갚을 때가 아직 오기도 전에 경작자들의 빚을 뜻밖에 줄여 주는 혜택을 주인이 취하도록 했음을 암시한 것이다.

(8) 자연재해가 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레 주인이 자신들과의 계약금액을 줄여 준 것은 그야말로, 주인의 크고 너그러우며 자비로운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라고 경작자들이 믿게 되었다.

8) 청지기는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경작자들이 직접 작성한 새로 수정된 모든 계약문서들을 모아 주인에게 가져다 주었다.

9) 이제 주인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만 한다.

(1) 경작자들을 찾아 가서, 좀 전에 작성된 수정계약들이 모두 실수 때문에 이루어 졌다고 해명한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미 그 청지기를 해직하였기에 그에게는 대리인의 자격이 아예 없으므로, 모든 수정계약이 무효라고 경작자들에게 설명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사람들의 빚이 크게 탕감되어 모두 들떠 기뻐하고 있는데 이런 설명을 해서 그들이 실망하고 분노하며 주인의 인색함을 비난케 할 수도 있다.

(2) 자신이 그냥 입을 다물고, 지역 주민들이 해 주는 칭찬을 그대로 즐기면서 부정직하나마, 지혜롭게 일을 꾸미고 행한 불의한 청지기와 함께 지역주민들이 열렬히 해 주는 칭찬을 만끽 할 수도 있다.

10) 청지기는 잘못을 저지른 자신에게 주인이 경제적으로 배상하라고 요구하지도 않고, 죄를 지었음에도 자신을 감옥에 넣지도 않아, 주인의 크나 큰 자비를 이미 체험한 바 있다. 그래서 이미 맛 본 주인의 크나 큰 자비를 무조건 믿어 보고 청지기는 자신의 모든 계획의 성패를 걸었다. 청지기의 계획이 성공했으며, 주인은 역시나 그에게 너그럽고 자비로웠다. 자신이 실천한 계획 때문에 주인이 다시금 경제적인 손실을 많이 떠 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 것 마저도 대신 감당하는 자비를 청지기에게 베풀어 그를 위기에서 구원해 주었다.

**2. 신학적이며 실천적인 결론**

1) 청지기를 처음부터 불의하며, 어두움의 자식이라고 까지 예수님께서 부르며 비판하였다 (누가복음 16:8).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비유들 속에서 불의한 인물들을 열거하셨다. “불의한 재판관” (누가복음 18:1-8), 밤중에 먹을 빵을 빌리러 온 이웃에게 냉정하게 대하던 “이기적인 이웃친구” (누가복음 11:1-13) 등이다. 비유들의 결론 부분에 예수님께서는 공통적인 교리의 요소를 도출하셨는데 – 가벼운 것에서 주요한 것으로, 혹은 불의한 재판관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에게로 –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는 “얼마나 더 잘 해 주시겠느냐?”는 방식을 사용하셨다. 그 당시의 랍비들이 가르칠 때 쓰던 비유들의 전개 방식이었다. 자신의 처한 위기에서 주인의 너그럽고 자비로우심을 믿고 벗어 나듯이, 제자들 또한 처한 위기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을 믿고 벗어 나라고 가르치신 것이다.

2)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를, 구약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지혜롭다”고 평가해 주셨다.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을 잘 보호하여 견디는 행위를 “지혜롭다”고 표현하셨기 때문이다. 사람이 자신이 당하는 위기를 스스로 잘 극복하고 잘 보존하는 기술을 “지혜롭다”고 표현하신 것이다. 청지기의 위기를 벗어 나는 계획과 그 실천을 주인이 “지혜롭다”고 불렀던 것은 그가 주인의 자비심만을 믿고 위기 속에서 주인으로부터 구원을 획득하는 기술을 발휘하였기에 그를 그처럼 평가하셨던 것이다.

3) 불의하지만 지혜롭게 행동한 청지기를 주인의 입을 빌려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다”. “칭찬하다”라는 동사는 메시야의 시대가 올 때, 제자들이 위기를 맞게 되며, 하나님의 자비만을 의지하여 그 위기를 벗어 나게 될 때, 그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칭찬하다”라는 것과 동일한 단어이기도 하다. 메시야의 마지막 심판 시에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듣는 “칭찬하다”라는 바로 그 동사다.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메시야의 왕국의 도래시에 당하는 위기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을 의지하여 벗어 나는 행위를 “지헤롭다”고 하시며, “칭찬”하시는 것이다 (참조: 고린도전서 11:2, 17, 22).

4)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요약.

(1)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는 주인) 공의로우신 심판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시작한 메시야의 시대에는 (여기서는 청지기의 위기시에는) 사람의 (여기서는 청지기) 불의가 결국 드러나기 때문이다. 메시야의 시대에는 불의한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뿐 변명할 여지가 없다.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불의한 청지기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자신의 가진 바 모두를 틀림없이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기댈 뿐이다.

(2)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그의 부정직한 계약수정 (속이는 행위) 때문에 칭찬한 것이 아니다. 자신의 불의가 주인에게 끼친 경제적 손실을 배상 하라고 명령도 아니하고 대신 감당할 뿐만 아니라, 감옥에도 넣지 않은 주인의 구원해 주시는 자비를 믿어 결국 위기를 극복하는 청지기의 행위때문에 그를 지혜롭다고 칭찬한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지혜를 필요로 한다.